



Market Index / 18일

코스피지수 ▼	3086.66 -47.07	코스닥지수 ▼	967.42 -12.35	유가(WTI, 달러) ▲	61.14 +1.09	환율(원)	1USD 100¥	살매	1127.39 1065.23	팔매	1088.61 1028.59	1EUR	1361.26 180.15	1CNY	1308.14 163.01
---------	-------------------	---------	------------------	---------------	----------------	-------	--------------	----	--------------------	----	--------------------	------	-------------------	------	-------------------

제주지역 일반사업체 부채비율 증가

2013년 60%서 2019년 79% 자기자본비율은 5% 이상 ↓

제주지역 일반사업체의 부채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자기자본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연구원이 18일 발표한 '제주 지역 사업체 경영안정성 진단과 정책 방향' 연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일반사업체의 부채비율이 2013년 60.8%에서 2019년 79.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업 전 기·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숙박 및 음식점업, 농업·어업은 200% 이상의 부채비율을 보였다. 부채비율이 가장 낮은 업종은 건

설업이 28.5%이며, 다음으로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 33.5%,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51.1%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자기자본비율은 2013년 60.9%에서 2019년 55.5%로 약 5.4% 감소했다. 자기자본비율이 50% 이상이면 자본이 부채보다 더 많은 상태를 의미한다. 또 제주지역 일반사업체 재고자산 회전율이 더 감소했다. 이는 재고자산이 매출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며, 재고보관중 발생하는 누수·파손·분실 등 재고 손실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보관관리를 위한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재고자산회전율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가장 높은 감소폭(147.9%)을 보였다. 일반사업체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2014년 -7.85%에서 2019년 -21.3%로 감소했다. 순이익 증가율은 2014년 -0.8%에서 2019년 -26.6%로 크게 줄었다. 자기자본 이익률 역시 2013년 12.0%에서 2019년 9.5% 수준으로 감소했다. 특히 제주지역 총자산순이익률은 2013년 5.0%에서 2017년 6.68%의 고점을 찍고 2019년 3.9% 수준으로 감소했다. 총자산순이익률은 기업에 투자된 자산(부채+자본)이 얼마나

운용되고 수익창출에 기여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와 관련 이종화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향후 기업지원 정책 추진 시 제주지역 내 사업체 경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체계 구축 필요 ▶관광빅데이터(신용카드 기준), 스톱데이터 등을 확대 및 연계해 활용 ▶중앙정부의 정책사업과 연계형 지원체계 구축 필요 ▶선진 행정 실현을 목표로 빅데이터 및 자동화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와 협의, 이를 위한 전문인력 참여형 정책수립 및 정책추진 관련 실험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제주 아파트 매매가 지난주보다 ↑

2월 3주 들어 0.20% 올라 전세가격 상승률은 0.19%

제주지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주 대비 0.20%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8일 발표한 2월 3주(2월1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5%, 전세가격은 0.19% 상승했다. 다만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 수도권(0.33%→0.30%), 서울(0.09%→0.08%), 지방(0.22%→0.20%) 등 모두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도별 살펴보면 경기(0.42%), 대구(0.42%), 대전(0.39%), 인천(0.34%), 부산(0.27%), 충북(0.21%), 경북(0.20%), 제주(0.20%), 강원(0.19%), 충남(0.18%), 울산(0.16%) 등은 상승했다. 아파트 매매가격의 경우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162→159개) 및 하락 지역

(10→4개)은 감소했으며, 보합 지역(4→13개)은 증가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도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22%→0.18%), 서울(0.10%→0.08%), 지방(0.21%→0.20%) 등은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도별로 들여다 보면 세종(0.48%), 대전(0.34%), 울산(0.34%), 대구(0.33%), 인천(0.24%), 부산(0.24%), 경기(0.23%), 강원(0.20%), 충남(0.20%), 경북(0.20%), 제주(0.19%) 등에서는 상승했다. 아파트 전세가격의 경우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161→159개) 및 하락 지역(7→4개)은 감소, 보합 지역(8→13개)은 증가했다.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www.r-one.co.kr) 또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태윤기자 ity9456@ihalla.com

“코로나 위기 극복 위한 관광진흥기금 신청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사업체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올해 상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월 25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접수한 결과 총 194건·399억 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옥두어 말리기 18일 제주시 한림항에서 어민들이 옥두어 말리기 작업으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상국기자

업종별로는 ▶여행업 53건·40억원 ▶관광숙박업 32건·147억원 ▶일반 숙박업 5건·5억원 ▶전세서비스업 11건·16억원 ▶관광식당업 14건·19억원 ▶렌터카 43건·82억 ▶기타 36건·9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용자 추천금액 선정 방식을 지난해에는 전년도 매출액 범위 내에서 선정했지만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상황 등을 고려해 최근 3년간 평균 매출 비용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제주웰컴센터 내 설치된 특별지원센터에서 접수하고 있다. 김재용 도 관광국장은 “향후 영세 관광사업체를 위한 특별 보증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대로기자

신성장 산업 ‘국세 감면’ 법령 개정 본격

조세 지원대상 신설·확대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상반기 신성장산업 분야의 국세 감면을 위한 법령 개정을 대중양 건의 등을 통해 강화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제주도는 투자유치 및 투자지구 지정 확대와 신성장 산업분야 조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신설·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제주의 천연원료를 활용한 화장품의 생산·가공·유통과 제주관

광시장의 연계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필요한 화장품 제조업 및 기술의 연구·개발사업, 마리나업에 대해 신설을 요청키로 했다. 또한 제주도내 취약한 성장 동력 산업을 유치해 관련 산업기반 조성이 필요한 전자·전기·정보·신물질·생명공학분야로 한정된 첨단산업을 전 분야로 확대한다. 물산업 클러스터 내로 한정돼 있는 식료품·음료제조업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확대한다.

연구개발사업 분야인 경우 보건의료기술에 한정된 것을 첨단기술과 화장품·식료품·음료제조업도 함께 추가한다. 국세 감면 개정 법령(안)이 반영되면 국세인 법인세·소득세는 3년간 면제되고 다음 2년간은 50% 감면된다. 관세인 경우에는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해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제주도는 신성장분야 업종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시행령이 최근 개정된 바 있다. 고대로기자

“웰니스 관광산업 육성에 박차”

18일 거버넌스 구축 선언

코로나19로 침체된 제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힘을 모은다. 제주관광공사는 18일 제주웰컴센터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관광·경제·연구 분야의 국가 및 지방공기업, 도내 출자·출연기관 및 학계, 그리고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제주형 웰니스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날 웰컴센터에는 총 23개의 도내·외 기관 및 단체가 모여 민관학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공동선언문 채택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제주경제 성장률이 -3% 내외로 추락하고 제주 입도 관광객 역시 지난해 1023만명으로 2019년 대비 33%가 감소하는 등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제주경제 전반에 극심한 어려움이 처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다. 참여 기관·단체는 침체된 제주 관



관광산업의 활성화 및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제주 웰니스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조사 강화, 제주형 웰니스 관광기업 육성 지원,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 신규 사업 기획 및 국비 발굴 등 예산확보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공동 마케팅 강화를 통한 지역 경제 가치 창출, ICT 기술 융합 스마트 웰니스 관광 환경조성, 웰니스 관광 국제포럼 개최 등을 공동 추진한다. 이태윤기자

감귤 신품종 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모둠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원터프린스, 제라온(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시라향, 아마다스

조생 유라조생, 하레조생, 궁천 (2년생 이상 100% 아삭한 모듬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유주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중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증묘

010-2691-1883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중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유라 (1~5년생)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 하레조생
- 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신품종 다수보유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묘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은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얄티 등 일본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확언서 발급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단, 일본의 보호신청 이후에 생산한 1,2년생 묘목을 판매하거나 구입 시는, 바로 법에 걸려짐.

·카라향	1, 4년생	·고림조생	3년생
·유라조생	1년생	·하레조생	2,3년생
·레드향(무독)	1,2,3년생	·한라봉	5,6년생
·천혜향(무독)	2,3,4년생	·하갈	2,3,7,8년생
·궁천	1,2,3,5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속도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중자업등록번호제주 18-2003-20-08

010-2699-2355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설(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